

2008. 7. 21 제195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7. 21 제195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미래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베를린市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문화·디자인

1. 공원 이미지의 ‘차 없는 거리’ (뉴욕)
2. 가스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 개관 (브라질 상파울루市)
3. 제2의 카니발 ‘성 요한의 날’ 축제 (브라질 바이아州)
4. ‘레즈비언-호모 페스티벌’ 통해 개방된 도시 매력 발산 (베를린)
5. 전통가옥 여행가이드 서비스 (상하이)

### 건강·복지

6. ‘어둠 속에서 저녁식사’ 행사로 시각 장애인 삶 체험 (브라질 쿠리치바市)
7. 차세대 육성을 위한 ‘빛낼 수 있는 요코하마 어린이 플랜’ (요코하마)
8. 지역별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영국)

### 행정·재정

9.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교부금 조성 (로스앤젤레스)
10.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 구청과 양해각서 체결 (런던)
11. 지방정부 규제정책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 톨킷 제작 (영국)

## 목 차

### 방재·안전

12. 위급상황에 대비한 'Ready Philadelphia' 프로그램 실시 (필라델피아)
13. 시민에게 응급구조 교육 실시 (상하이)

### 도시환경

14. 집 앞에 나무 심으면 세금 감면 (브라질 소로카바市)
15. 오래된 건물도 임대·매매에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제출 (독일)
16. 공원녹지 재활성화에 투자 (런던)

### 도시교통

17. '자전거 출퇴근 직장인 대회' 개최 (런던)
18. 기관사 없는 전자동 지하철 첫 운행 (독일 뉘른베르그市)
19. 온도 조절 시스템 갖춘 원통형 버스정류장 설치 (브라질 쿠리치바市)
20.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 (런던)
21. 도시 보행환경 조성 계획 '내쉬 램블라스' (맨체스터)
22. 대중교통·문화시설 할인 혜택 가득한 '외출 패스 2008' (도쿄)

### 도시계획·주택

23. '창조적인 특별 도시계획 지역' 조성 (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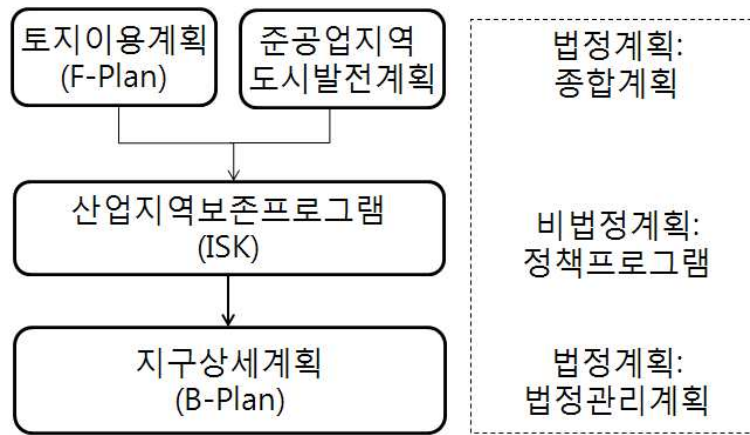
## [벤치마킹 사례]

### 미래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베를린市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주요 내용>

- 베를린市는 통일과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 이후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통일 이후 베를린市 일부 준공업지역에는 업무·상업·대형 판매시설 등이 입지해 용도가 전환됐고,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지가 상승과 산업기반의 약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됨.
- 베를린市는 산업체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산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992년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ISK: Industrieflaechensicherungskonzept)을 도입함.
  -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이란 베를린市의 중요한 산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선정해 산업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임. 총 21개 지역(3300ha)이 선정됐고,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베를린市 전체면적의 6.7%인 59.7km<sup>2</sup>임.
  -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으로 산업기반을 유지·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준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했음.
- 준공업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를린市는 1999년 장기종합계획인 ‘준공업지역 도시발전계획’(Stadtentwicklungsplan Gewerbe)을 수립함.

- 준공업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1000ha 규모의 준공업지역을 베를린 토지이용계획(F-Plan)에 추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
  - 운영 결과, 2002년까지 310ha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활성화됐으며 2010년까지 총 410ha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예정임.
  - 준공업지역에 건설업체, 유통단지, 생산자서비스, 운송업체 등 산업활동과 연관 있는 업종을 허가해 유연한 운영방안을 마련함. 단, 업무시설, 대형 판매시설, 여가·숙박시설 등은 타 용도지역에서도 허용되므로 준공업지역에서의 입지를 규제함.
- 베를린市는 통일 이후 준공업지역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을 1992년에 수립했으며, 1999년에 준공업지역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산업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준공업지역에 대한 상위계획은 법정계획인 토지이용계획(FNP)과 도시발전계획(Stadtentwicklungsplan)으로 구성함.
  - 토지이용계획은 준공업지역의 규모, 위치, 허용 용도, 밀도 등 평면적인 내용을 규정함.
  - 도시발전계획은 준공업지역뿐 아니라 인구, 주택, 기반시설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준공업지역의 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을 제시함.
  - 베를린市는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이라는 비법정계획을 수립해 준공업지역을 정책적으로 관리함.
  - 준공업지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구상세계획(B-Plan)이 수립됨으로써 향후 용도지역으로서의 보존 및 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가지게 됨.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베를린시의 계획체계

### <해설 및 평가>

-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개선함.
  - 베를린시는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한 준공업지역의 위기를 도시발전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해결함.
  - 베를린시 준공업지역의 관리원칙과 개발방향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발전계획에서 결정하고, 전략프로그램은 산업지역 보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며, 지구상세계획(B-Plan)은 준공업지역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수단이 됨.
- 베를린시는 도시경쟁력 제고와 도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준공업지역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산업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
  - 도시형 제조업의 활성화는 직주근접을 통한 교통량의 감소, 도시산업의 기반 마련, 다양한 도시성의 제시 등 건전한 도시발전에 중요한 전제조건임.
  - 준공업지역에 입지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사전에 새로운 제조업체 유인을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시정부, 자치구,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마련함.

- 과거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은 산업경제적 잠재력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기에 대부분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음.
  - 이들 건물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어 디자인도시 형성과 도시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음.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규정 완화에 따른 부작용

- 서울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업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제조업 기반 약화, 공장 이전, 공동주택 건설 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책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음.
- 최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시의 중요한 산업기반의 멸실, 주변지역을 포함한 부동산가격 상승,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미래형 산업유치, 산업시프트 확보, 세입자 대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방침임.

#### ○ 민원 해소성 위주의 준공업지역 관리정책

-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관리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민원 해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서울 시가지 면적의 5% 미만인 준공업지역 부지마저 아파트로 전환될 경우 단기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도시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산업기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공업지역 관리정책을 수립함.
- 서울의 성장동력으로서 준공업지역의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서울시, 자치구, 기업체, 산업 및 경제 관련 기관 등이 다각적으로 연계해 준공업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함.
  - 이를 도시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준공업지역종합정비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미래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준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및 허용·유도 용도에 대해 재검토함.

### <벤치마킹 기대효과>

-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서울의 미래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준공업지역 관련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산업구조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준공업지역의 산업 및 지역적 잠재력을 재활용해 산업·주거·문화·여가 등 여러 기능이 조화된 미래의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함.

/김인희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hkim@sdi.re.kr)



### 1. 공원 이미지의 ‘차 없는 거리’ (뉴욕)

○ 뉴욕市는 2008년 8월 중 토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 프로그램인 ‘Summer Street Closings’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브록클린 다리 북쪽의 파크 애비뉴부터 어퍼 이스트 사이드까지 11km가 오전 7시~오후 1시에 걸쳐 모든 차량통행이 금지됨.

·이 프로그램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차량이 통제된 구간에서는 댄스, 건강, 요가 수업이 진행되고 자전거 대여소도 마련됨.

·도로가 단순히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공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주차공간 부족, 차량통행 금지에 따라 운송이 불가능하게 된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반대하고 있음.

·식당과 바에서의 금연정책 시행 시 초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가게 수익이 증대된 것에 비교하면서, 거리의 차량통제 정책도 성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www.nytimes.com/2008/06/17/nyregion/17closing.html?\\_r=3&oref=slogin&oref=slogin&oref=slogin](http://www.nytimes.com/2008/06/17/nyregion/17closing.html?_r=3&oref=slogin&oref=slogin&oref=slogin))

### 2. 가스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 개관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 도시가스공사는 20세기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가스의 역사를 담은 가스 박물관을 3800만 헤알(약 190억 원)을 들여 최근 개관함.

- 가스 박물관을 통해 가스 사용의 현대화 과정을 보여주고, 가스 보급의 역사 뿐 아니라 당시 사회의 생활습관과 발전상황도 동시에 보여줌.

- 박물관에는 1872년에 창설된 상파울루 도시가스공의 개관식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사진 19장이 전시돼 있고, 가스 광고물과 잡지 등도 있음.
- 당시 주민의 증언과 1958년에 녹음한 ‘가스 전구’에 대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생산과정을 담은 10분짜리 비디오가 상영됨.
- 산토스 해역에서 발견된 첫 천연가스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음.

- 입장은 무료이며, 개방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로 관람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림.

([triangulo.org.br/site/index.php/20080325155/Modernidade-e-auto-suficiencia](http://triangulo.org.br/site/index.php/20080325155/Modernidade-e-auto-suficiencia))

### 3. 제2의 카니발 ‘성 요한의 날’ 축제 (브라질 바이아州)

○ 브라질 바이아州는 ‘성 요한의 날’을 제2의 카니발 축제로 활성화할 계획임.

- 바이아州는 성 요한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제2의 카니발로 활성화하고자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주정부는 성 요한 축제 광고로 1000만 헤알(약 50억 원)을 투자함.
- 여행사 1곳과 협력해 축제 특별여행 패키지도 만들.
- 성 요한 축제는 417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므로, 성 요한의 날에 시민들은 여러 지방도시로 흩어짐.
- 인구가 3만 5000명에 불과한 아마르고사市는 성 요한 축제 때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듦.
- 소놀 도 본뎀市는 35개의 쇼와 전통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www.estadao.com.br/arteelazer/not\\_art185090,0.htm](http://www.estadao.com.br/arteelazer/not_art185090,0.htm))

#### 4. ‘레즈비언-호모 페스티벌’ 통해 개방된 도시 매력 발산 (베를린)

○ 매년 베를린市가 주최하는 문화축제 행사인 ‘레즈비언-호모 페스티벌’이 2008년 6월 20~21일 개최됨.

- 올해로 16번째인 이 행사는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레즈비언-호모 페스티벌로 자리잡았음.
  - 2008년에는 1920년대부터 레즈비언-호모 클럽과 카페들이 들어섰던 ‘놀렌도르프 광장’(Nollendorfplatz)에서 열렸음.
  - 놀렌도르프 광장과 연결된 4개의 인근 도로에서 레즈비언-호모 퍼레이드를 벌이고, 거리에 설치된 6개의 이벤트 장소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모인 35만여 명의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파티를 열음.
  - 이 지역 상가와 문화시설 등도 독특한 문화행사를 열었으며, 참가한 독일 동성애 협회와 단체들은 여러 개의 간이 상담소를 설치해 상담을 진행함.
- 이 행사는 관습에서 벗어난 젊고 자유롭고 개방된 도시로서의 베를린市의 매력을 발산하게 하고,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전통을 축제화해 경제 발전에 기여함.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schwullesbischfest](http://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schwullesbischfest))

## 5. 전통가옥 여행가이드 서비스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쉬웨이區 전통가옥 지역에서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위성시스템을 통해 주소, 사진, 관련 일화, 건물 역사 등의 음성정보 서비스 제공) 여행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함.
    - GPRS 기기는 휴대폰과 유사하며 위성통신을 통해 위치정보를 인식해 정보를 제공하므로 별도의 장치나 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
      - 역사 인물 관련 전통가옥 일대 30개소에 200대의 기기가 설치돼 활용 중임.
    - 상하이市는 2010년 상하이 박람회가 열리기 전까지 GPRS 서비스 가능 지역을 40개소 이상 추가 확대할 계획임.
      - 호텔이나 관광안내소 등에서 GPRS 기기를 대여하도록 해 언제 어디서든 전통가옥이나 역사 유적지와 관련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6/16/content\\_13548795.htm](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6/16/content_13548795.htm))

## 건강 · 복지

### 6. ‘어둠 속에서 저녁식사’ 행사로 시각 장애인 삶 체험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시각 장애인이 겪는, 일상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사회활동재단 등과 함께 제1회 ‘어둠 속에서 저녁식사’ 행사를 실시함.
  - 이날 행사에 가이드로 참여한 대학생 30여 명의 도움으로 식탁에 앉은 참가자들은 어둠 속에서 음악을 듣고 아로마 향을 맡으며 저녁식사를 함.
  - 행사 초대장은 150헤알(약 7만 5000원)에 판매됐으며, 행사 수익은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될 예정임.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3680](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3680))

## 7. 차세대 육성을 위한 ‘빛낼 수 있는 요코하마 어린이 플랜’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차세대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2003년 7월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차세대 육성 지원 행동 계획’을 수립함.
  -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은 2015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한시법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장래를 빛낼 수 있는 요코하마 어린이 플랜’을 수립함.
    - 가정의 육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육아 가정을 지원하며, 육아의 의의나 기쁨을 전 지역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임.
    -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 육성에 대한 대응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춘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함.
    - 저출산화 흐름을 바꾸고 차세대를 담당할 어린이가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www.city.yokohama.jp/me/kodomo/action/plan/kodomoplan.html](http://www.city.yokohama.jp/me/kodomo/action/plan/kodomoplan.html))

## 8. 지역별 건강불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영국)

- 영국보건부는 최근, 런던市에서도 부유층 지역인 켄싱턴과 첼시 지역에 태어난 어린이가 맨체스터 지역에서 태어난 어린이보다 10년은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연구결과에 따르면, 켄싱턴과 첼시 지역의 평균수명은 83.1살이고, 맨체스터 지역의 평균 수명은 73살임.
  - 흡연 관련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영국의 동부 도르셋 지역인데,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노스레이 지역의 절반 수준임.
    - 노스레이 지역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비율이 33%로 영국에서 가장 낮음.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강조됨.
- 현재 영국에서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며,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 지역 자치구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불평등 지역의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22576](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22576))

## 행정 · 재정

### 9.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교부금 조성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극심한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폐기물 종합관리국’(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에서 50만 달러(약 5억 2000만 원) 기금을 지원 받음.
- 로스앤젤레스市 남쪽 지역은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돼 왔음.
- 실제 버려지는 쓰레기는 전체 도시에서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의 절반가량임.
- 이 지원금은 불법 투기 쓰레기로 낙후된 지역 재정비는 물론,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처벌하도록 검찰당국과 지역 주민 교육에도 쓰임.
- 쓰레기 불법 투기가 주로 행해지는 주요 도로를 감시하는 인원을 배치해 불법 투기 근절에 노력할 것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dumping18-2008jun18,0,4363300.story](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dumping18-2008jun18,0,4363300.story))

## 10.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 구청과 양해각서 체결 (런던)

○ 런던市와 각 구청은 신임시장 취임 이후 좀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 런던시장과 구청장, 시의회·구의회 의원의 협력 이유를 전제한 뒤, 런던을 이끌어어나가는 데 필요한 행정원칙(Principles for Governing in London)과 실천방침(Actions for London)을 시장과 구청장이 서면 합의함.

- 행정원칙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결정 방식 도입, 시·구청 조직의 다양한 역할 인정, 세계 일류도시로서 다양한 인종·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해 요구, 반부패·열린 행정 추진, 공동 협력을 통한 정책 효과성 증대 등임.

- 행정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침은 다음과 같음.

·시·구 대표 및 의원 등 런던市 산하 선출직이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한자리에 모여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런던대의회(Congress of London) 개최

·런던시장과 구청장 간 정기회의 개최, 런던대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런던市와 구청 내 고위 실무자로 구성된 행정실무위원회(delivery board for London) 운영

·런던 행정개혁과 정책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의 자체 평가 보고 정례화

([www.london.gov.uk/mayor/priorities/local-government.jsp](http://www.london.gov.uk/mayor/priorities/local-government.jsp))

## 11. 지방정부 규제정책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 툴킷 제작 (영국)

○ 지방정부의 규제 관련 정책 자문·지원을 맡고 있는 영국 지방정부규제조정관실(LACORS: Local Authorities Coordinators of Regulatory Services)은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규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하기 쉬운 정책수립 툴킷

(Toolkit)을 제작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규제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됨.
  - 툴킷에 포함된 기후변화 규제정책 수단은 에너지 지원, 차량 무료 대여제 도인 카클럽(Car Club), 지속가능한 음식 조달방식, 다양한 주차단속제도 시행 등임.
- 지방정부의 적응력 높이기 부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함.
  -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대기오염 대책, 건물 및 교통수단·시설의 온도조절 방안 등이 포함됨.
- 툴킷은 지방정부의 환경정책뿐 아니라 산업표준, 민간주택 시설관리 및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다양한 행정규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됨.

([www.lacors.gov.uk/lacors/ContentDetails.aspx?id=19476&authCode=](http://www.lacors.gov.uk/lacors/ContentDetails.aspx?id=19476&authCode=))

## 방재 · 안전

### 12. 위급상황에 대비한 'Ready Philadelphia' 프로그램 실시 (필라델피아)

- 필라델피아市는 테러, 자연재해,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프로그램인 'Ready Philadelphia'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빠르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
- 위급상황에 시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염가에 제공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상황에 맞는 행동방식 등을 교육함.
  - 미국 적십자 단체 및 구세군과 협력해 시민에게 안전 및 응급상황 교육을



무료로 실시함.

· 시민은 주거지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 적십자, 구세군 회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적십자와 구세군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음.

- 관내 5개 카운티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방관과 경찰관의 출동상황을 함께 파악·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www.readyphiladelphia.org/RelId/605967/ISvars/default/Get\\_Ready.htm](http://www.readyphiladelphia.org/RelId/605967/ISvars/default/Get_Ready.htm))

### 13. 시민에게 응급구조 교육 실시 (상하이)

○ 상하이시 적십자는 2008년 약 3만 5000명의 전문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35만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구조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이나 각종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면서 시민 응급처치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임.

· 주요 교육과정은 심폐소생술, 출혈 및 상처 응급처치, 골절환자 고정법, 응급환자 운송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활동원칙 및 준수사항 등임.

· 주요 교육대상은 여행가이드, 교사, 교통정리원, 주민회 간부, 학생 등임.

- 상하이 엑스포가 개최되는 2010년까지 10만 명의 전문 응급구조사를 양성할 예정이며, 100만 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배양할 계획임.

· 상하이시 중·고등학교에 5개의 응급구조 교육센터도 설립할 계획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6/11/content\\_13507834.htm](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8-06/11/content_13507834.htm))

## 도시 환경

### 14. 집 앞에 나무 심으면 세금 감면 (브라질 소로카바市)

○ 상파울루州 소로카바市는 집 앞 인도에 나무를 심고 사진을 찍어 시청에 제출하면 토지가옥세(IPTU)를 5%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 소로카바 시청은 토지가옥세 감면 정책을 통해 도시의 녹색화를 추진하며, 약 10만 그루 나무가 새로 심길 것으로 기대함.

([www.bomdiariopreto.com.br/index.asp?jbd=2&id=158&mat=135150](http://www.bomdiariopreto.com.br/index.asp?jbd=2&id=158&mat=135150))

#### >>> 전문가 검토의견

- 생활공간에 다량의 나무를 시민이 직접 심고 이를 市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좋은 사례임.

· 집앞 공간에 화분, 화단, 수목식재 등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정책적·경제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녹지의 양이 풍부해지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 대기오염 정화, 쾌적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특히 사유지 녹화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옥상녹화 지원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는 ‘푸른 서울 가꾸기’ 계획에 따라 세제감면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목 및 비료 등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녹지관리실명제나 아파트 꽃가꾸기 운동, 시민기념식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집 외부공간에 식재하고 세금감면을 요청한다고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수목의 종류 및 상태, 지역 여건에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식재 이후의 관리까지 녹화계약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15. 오래된 건물도 임대·매매에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제출 (독일)

○ 2008년 7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1965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의 임대와 매매에 있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Energieausweis) 제시가 의무화됨.

-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명서 의무화 확대는 앞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기여할 것이며, 노후건물 매입자나 세입자도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계산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게 됨.
  -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가 자동차 구입 시 선택의 기준이 되듯이 부동산 선택에서도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는 건물 유형, 건축방식, 크기, 건축년도 등으로 건물을 구분하고 냉난방, 온수비용, 환기 상태, 전기세 등에 따라 에너지효율성을 가장 좋은 A급에서 가장 나쁜 H급까지 분류함.
  -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건물 소유주는 공인 자격을 가진 건물감정사나 건축가 등에게서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는 2002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의무사항이었으나 이제는 1965년까지 지어진 노후건물에도 적용됨.
- 독일 연방 교통·건설·도시발전부는 독일에서 가장 큰 부동산마켓과 협력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의 목적과 기능을 알리고, 웹사이트에 에너지 효율성을 제시한 독일 전역의 매물을 게재하기로 함.

([www.bmvbs.de/-,302.1043108/Tiefensee-Energieausweis-wird-.htm?global.back](http://www.bmvbs.de/-,302.1043108/Tiefensee-Energieausweis-wird-.htm?global.back))

([www.bmvbs.de/Bauwesen-,1406.1035609/Tiefensee-Energieausweis-wird-.htm](http://www.bmvbs.de/Bauwesen-,1406.1035609/Tiefensee-Energieausweis-wird-.htm))

([www.energieagentur.nrw.de/energieausweis](http://www.energieagentur.nrw.de/energieausweis))

### >>> 전문가 검토의견

- EU의회는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을 제정해 1000m<sup>2</sup> 이상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음.

- 이 지침에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건물 수리, 잘 보이는 곳에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게시, 적정 실내온도 및 현재 실내온도 표시, 건물의 신축·매매·임대 계약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첨부 등의 의무사항을 제시함.
- 이외에도 건물 신축 시 열병합발전, 지역 냉난방,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시설 설치 등 고효율 또는 환경친화적인 냉난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냉난방기기의 정기적인 검사 의무 등을 규정함.

- 고유가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건축 관련 법규와 조례 등을 개정해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의무화해야 함.
-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임대 및 매매 시 이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조항문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16. 공원녹지 재활성화에 투자 (런던)

- 런던시는 600만 달러(약 120억 원)를 투자해 런던시 공원과 녹지를 깨끗이 정리하고 개선하겠다는 재정 계획을 최근 발표함.
- 소요 예산은 런던시 행정부의 공공 홍보를 위해 발간됐던 신문을 폐간함에 따라 확보함.
- 런던시는 낙후된 공원과 녹지지역을 ‘우선순위 공원’(Priority Parks)으로 지정해 향후 4년 동안 투자함.
- 우선순위 공원 지정과 관련해 런던 시민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
- 녹지와 공원 재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여가를 즐기며 범죄와 반사회행동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455](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7455))

## 도 시 교 통

### 17. ‘자전거 출퇴근 직장인 대회’ 개최 (런던)

- 고유가 시대 여가용이 아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런던교통공사는 2008년 6월 한 달 동안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 직장인 대회’(Workplace Cycle Challenge)를 시행함.
  - 참가 희망자는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자전거 출퇴근 기록양식을 다운 받아 한 달 동안 작성해 제출하면 됨.
  - 공정한 심사를 위해 회사 규모를 소형(최소 6~19명), 중소형(20~250명), 대형(251~1000명), 초대형(1001명 이상)으로 나눔. 각 단위에서 자전거 출퇴근 직장인이 가장 많은 회사, 처음으로 자전거를 출퇴근에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회사, 자전거 출퇴근 거리가 가장 긴 회사 등 3개 부문으로 시상함.
  - 회사별로 동호회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회원 수를 늘이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용 메일문구나 안내문 등을 제공함.
  -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사람을 위해 선착순 150명에게 무료 일대일 자전거 훈련 및 상담 기회도 마련함.



‘자전거 출퇴근 직장인 대회’ 포스터

([cyclechallenge.tfl.gov.uk/index.php](http://cyclechallenge.tfl.gov.uk/index.php))

##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の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은 유가상승으로 고심하는 많은 도시에서 검토할 만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자전거를 통행수단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해 출퇴근 통행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자전거는 상당 부분 레저 수단으로 인식돼 왔음. 서울시도 런던市の 정책과 같이 자전거를 통행수단의 하나로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자전거는 통행의 특성상 장거리 통행을 대신하기는 어려우므로, 프로그램 개발 시 보행과 대중교통 등 타 통행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신혜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 18. 기관사 없는 전자동 지하철 첫 운행 (독일 뉘른베르그市)

- 독일 뉘른베르그市는 독일에서 첫 번째로 기관사 없이 전자동으로 가동되는 지하철을 운행함. 출발, 가속, 정지뿐 아니라 지하철문 여닫음 등 모든 과정을 중앙통제소의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하고 통제소 직원이 감시함.
- 뉘른베르그 지하철의 전자동화는 뉘른베르그市와 뉘른베르그 교통공사, 지멘스 회사가 6억 유로(약 9000억)를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임.
- 현재는 3호선 6,5km 구간만 기관사 없이 전자동으로 운행되지만 곧 3호선 전체 구간, 2008년 말까지 공항과 연결되는 2호선 전체구간이 자동화될 예정임.
- 전자동화를 통해 이제 지하철은 기관사가 운행하는 지하철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할 것으로 기대됨.
- 승강장의 추락 사고의 경우 기관사는 기차를 세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전자동화된 기차는 바로 정지할 수 있음.

·통제소는 비디오카메라로 지하철 내외부의 모든 영역을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까지도 인지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소방차도 3분 안에 사고지점에 도착시킬 수 있음.

- 자동화로 발생하는 기관사 실직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을 고객센터와 통제소로 배치한다는 방침임.

- 현재 헬싱키, 파리, 홍콩도 뉘른베르그市的 프로젝트를 따라 지하철의 전자동화를 계획 중임.

([www.heise.de/newsticker/Fahrerlose-U-Bahn-nimmt-in-Nuernberg-offiziell-den-betrieb-auf-/-/meldung/109469/from/rss09](http://www.heise.de/newsticker/Fahrerlose-U-Bahn-nimmt-in-Nuernberg-offiziell-den-betrieb-auf-/-/meldung/109469/from/rss09))

([www.spiegel.de/reise/aktuell/0,1518,452912,00.html](http://www.spiegel.de/reise/aktuell/0,1518,452912,00.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철도의 무인운전 개념은 이론과 기술면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음. 다만, 실제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전격적인 시행에 걸림돌이 돼 왔는데, 이번 독일의 혁신적인 조치는 전세계적인 무인운전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도 이미 2009년 개통을 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지하철 9호선에 무인 자동운전 개념이 적용됐으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쟁점에 따라 기관실에 1인 승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음.

·기관실 승무원 배치는 실제 운전업무를 위한 것은 아니고 비상상황 조치와 차내 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독일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인운전이 철도 운영과 승객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추후 서울의 도시철도운영에도 무인운전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손기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kmsohn@sdi.re.kr)

## 19. 온도 조절 시스템 갖춘 원통형 버스정류장 설치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그린 라인’ 도로에 직경 3m, 길이 30m의 원통형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 시작함.
  - 외관은 빛이 반사되는 유리로 만들어져 정류장 안으로 강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온도 조절 시스템을 통해 정류장 안을 적절한 온도로 유지함.
    - 정류장 내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고, 도시 정보를 알려줄 디지털 시스템이 설치되며, 버스 운전자 및 수금원을 위한 화장실도 설치됨.
  - 그린 라인 도로는 쿠리치바市에서 미주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쿠리치바市에서 6번째 큰 도로임.
    - 10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2만 1000m<sup>2</sup>의 공원, 주차 공간 등도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3626](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3626))

## 20.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 (런던)

- 영국산업연합(Confederation for British Industry)은 런던市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가 런던市 교통네트워크가 비즈니스와 수도로서의 런던市的 경쟁력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 설문조사 결과, 런던市 교통시스템이 ‘좋지 않음’, ‘점점 나빠지고 있음’에 37%, ‘ 좋음’, ‘ 좋아지고 있음’에 38%가 응답함.
    - 런던市的 교통시스템이 좋다는 답변이 59%였던 2007년의 조사결과에 비해 많이 낮게 나왔음.
  - 런던지하철의 현대화 계획, 진행 중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의 조속한 완공, 노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영국산업연합 관계자가 말함.



## 21. 도시 보행환경 조성 계획 ‘내쉬 램블라스’ (맨체스터)

- 런던 출신의 유명 건축가가 19세기 영국의 건축가 존 내쉬(John Nash)가 이루어던 인간적인 도시 보행환경을 조성해 런던만의 장소성을 구축하고자, 존 내쉬의 이름을 딴 ‘내쉬 램블라스’(Nash Ramblas) 계획을 제안함.
  - 이 계획은 런던의 프라임로즈 힐(Primrose Hill), 리젠트 공원, 런던동물원, 광장 공원, 크레센트 공원, 포틀랜드 플레이스(Portland Place), 리젠트 거리(Regent Street), 워털루 플레이스(Waterloo Place)를 보행공간으로 연결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리젠트 공원과 도심의 웨스트 엔드(West End)를 연결하는 전용 보행공간 조성
    - 포틀랜드 플레이스를 따라 조성된 주차지역을 카페로 만들어 여유공간으로 조성
    - 존 내쉬의 동상 건립
    - 옥스포드 서커스(Oxford Circus)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 22. 대중교통·문화시설 할인 혜택 가득한 ‘외출 패스 2008’ (도쿄)

- 도쿄都 교통국은 여름휴가를 맞아 부모와 자녀가 부담 없이 도(都)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승차권 ‘외출 패스 2008’을 발매함.
  - 원래 판매되는 수도권 1일 승차권과 비교해 최대 50%나 할인되며 도쿄 체험시설에 방문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이나 선물 등을 받을 수 있음.
  - 이 패스로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총 66개임. 우체국 종합 박물관,

도쿄 국립 미술 공예관, 도쿄타워 수족관, 우에노 동물원, 일본 미래 과학관 등 공공 문화시설 등의 요금할인을 비롯해 영화관과 쇼핑 타운에서의 특전도 있음.

- 패스 가격은 500엔(약 5000원)이고, 2만 5000매 한정으로 발매됨.
  - 어른 1명에 초등학생 2명분이 포함돼 있어, 통상 금액(어른 500엔×1명+어린이 250엔×2명=1000엔)의 50%에 해당함.
- 여름 방학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도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에 한정된 ‘외출 패스 2008’ 외에도 도쿄都 지하철 1일 패스권 등 기타 교통수단의 승차권을 이용한 할인 특전을 준비 중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6/20i6o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6/20i6o300.htm))

## 도시계획·주택

### 23. ‘창조적인 특별 도시계획 지역’ 조성 (런던)

-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은 창조산업과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 창조 도시계획 지역’(Special Creative Planning Zones)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특별 창조 도시계획 지역 지정은 런던의 창조산업의 전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창조적인 런던’(Creative London)에 의해 제안됨.
  - ‘창조적인 공간 연구 프로젝트’(Creative Space Research Project)의 결과에 따르면, 성공적인 ‘창조 지구(地區)’(Creative Quarters)는 공공의 관여 없이는 쇠퇴하고 소멸하게 될 것임.
  - 창조산업은 침체지역을 활성화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토지의 가치 상승은 주택개발업자의 투기로 이어져 기존의 가난한 커뮤니티를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함.

- ‘창조적인 런던’ 국장은 창조산업이 도시를 재생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지만 시장 중심의 창조산업 성격상 정부의 관여가 없을 경우 지속가능한 창조산업 클러스터(Sustainable Creative Clusters)를 조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산업 클러스터에 창조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만 수용하는 특별 창조 도시계획 지역 지정이 필요함. 이와 함께 공공부문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도 해야 함.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527109)

### >>> 전문가 검토의견

- 예술인이 자리잡아 지역이 혁신된 사례는 많음. 하지만 이들은 지역가치가 상승하자마자 쫓겨나기 십상임.
- 뉴욕의 소호, 런던의 배터시 주변, 북경의 다싼즈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
- 창의적 인구 유지 및 지역발전을 모델로 창조적인 특별 도시계획 지역을 지정한다는 런던의 발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임.
- 서울시 또한 문화지구 지정 이후, 혹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예술인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음.
- 인사동, 대학로, 홍대가 그러하였고, 최근엔 문래동이 그러함.
- 적극적인 차원에서 예술군락지를 보전하고, 이를 창조산업지구로 만들기보다 창의친화적이고 예술친화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